

2016년 타이완 총선과 제3정당 시대역량(時代力量)의 등장

고 금 비*·원 재 연**

요약

이 논문은 타이완의 ‘시대역량’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입법원 진출과 제3정당 지위확보라는 ‘사건’을 통해 최근 진행된 타이완 사회의 변화와 세대교체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당대결구도였던 타이완 정당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며, 그 배경에는 지난 2014년의 태양화운동과 2013년 군대인권유린사건 등의 반 국민당, 반 중국 정서를 나타내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타이완에는 기존 국민당과 민진당이 아닌 새로운 제3세력이 제도정치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 집권정당인 중국국민당이 타이완의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이 타이완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면, 젊은 신생정당인 시대역량은 타이완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방법론적으로 이 논문은 사건사 분석(eventful analysis)의 전통에서 있다. 사건사 분석은 개별적 사건들과 거시적 구조의 밀접한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본 논문에서는 태양화운동과 군대인권유린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타이완에서 시대역량의 제3정당화를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논의했던 신생정당 시대역량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졸업, kbkoh_@daum.net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jywon@yonsei.ac.kr

수 있겠다. 첫 번째, 시대역량은 태양화운동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정당이다. 두 번째, 시대역량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민당의 '92원칙'도 아니고 민진당의 모호한 정책도 아닌 명확한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한다. 세 번째, 민진당 정권 아래에서 시대역량은 야당의 위치이다. 따라서 민진당과의 협조뿐만 아니라 갈등의 여지도 존재한다.

주제어: 시대역량, 태양화운동, 타이완, 2016 총선, 사건사 분석

I. 들어가는 말

2016년 1월 16일 시행된 타이완 총선은 총통선거와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立法院) 선거를 동시에 시행하였다. 제14대 총통선거에서는 민진당(民進黨) 소속 차이잉원(蔡英文)이 사상 첫 여성 총통으로 당선되었으며, 제9대 입법위원 선거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진당이 전체 의석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데 성공하였다. 총통선거에서 민진당의 차이잉원은 국민당의 주리룬(朱立倫)을 300만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으며, 입법의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이 총 113석 중 68석을 획득하면서, 35석을 획득한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 이하 국민당)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집권당이 되었다. 이로써 국민당은 총통선거와 입법원 선거에 모두 패배하며 여당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었다. 비록 과거 천수이벤(陳水扁) 시절에도 야당 경험을 했으나 8년만에 다시 야당이 된 국민당에게 2016년의 총선은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차이잉원이라는 최초의 여성총통의 당선을 가져온 2016 타이완 총선은 민진당의 전면집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강준영·장영희 2016).

사실 이러한 총선의 결과는 단순히 타이완 사회의 내부에 제한된 것

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지난 2016년 1월 총선 전날, 연예기획사 JYP소속의 타이완출신 걸 그룹 멤버인 쓰위(周子瑜)가 방송에 출현하여 “중국은 하나이고 중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중국인’으로서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함을 사과하였다. 2015년 문화방송 한 프로그램에서 타이완 국기를 흔들었다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쓰위는 가수 황안(黃安)을 비롯한 중국 일부로부터 ‘타이완 독립분자’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은 바 있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쓰위의 사과장면은 공교롭게도 타이완 총선 전날 방영되었으며, 역설적으로 타이완 유권자들의 반중국, 반국민당 정서를 자극하게 되었다. 타이완에서는 이를 ‘쓰위효과’(周子瑜效應)라 부르기도 한다(성균중국연구소 2016). 이른바 쓰위효과를 통해 나타난 타이완의 정서는 스스로의 주체적인 독립지향성이 중국본토와 구별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난 8년간의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집권기 동안 반 국민당, 반 중국 정서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정홍성·김하림 2012; 쉬진위·안소현 2016).

이러한 반 국민당, 반 중국 정서 속에서 ‘시대역량’(時代力量)이라는 새로운 타이완의 정당이 입법의원선거에서 5석을 차지함으로써 제3정당으로 부각되었다. 비록 5석의 소수정당에 불과하지만, 현재 타이완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정당이 바로 시대역량이다(대만은 지금 2017/01/06). 쓰위사건을 통해 드러난 타이완 사회의 반 국민당, 반 중국 정서와 신생정당 시대역량의 등장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과거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였던 민진당은 이제 집권정당으로서 공식적으로 독립을 주장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게 되었다.

과거의 타이완 정당정치가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이슈로 집권 국민당에 민진당이 도전하는 형식이었다면 2016년 선거에서는 시대역량이

라는 보다 젊고 민진당보다도 급진적인 제3세력이 등장하게 되었다. 시대역량의 등장은 마잉주 집권 시기 진행된 친 중국정책에 대한 반발로서의 태양화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발발과 홍콩에서의 우산운동과 중국의 탄압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2016년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국민당의 분열과 몰락, 그리고 시대역량의 제도권 정치진입은 타이완 사회의 새로운 정치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집권정당인 중국국민당이 타이완의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이 타이완의 현재모습을 보여준다면, 젊은 신생정당인 시대역량은 타이완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 연구방법론

이 논문은 시대역량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타이완 입법원 진출과 제3정당 지위확보라는 ‘사건’(event)을 통해(Sewell 2005; Won 2011) 최근 진행된 타이완 사회의 변화와 반 국민당, 반 중국 정서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당 대결구도였던 타이완 정당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며, 그 배경에는 지난 2014년의 태양화운동과 2013년 군대인권유린사건 등의 반 국민당, 반 중국 정서를 나타내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타이완에는 기존 국민당과 민진당이 아닌 새로운 제3세력이 제도정치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역사사회학자 스웰(William Sewell Jr.)이 주창하는 사건사 분석(eventful analysis)의 전통에 서 있다. 사건사 분석은 법칙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학과 개별기술 역사학 사이의 대립과 반목을 넘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설명적이면서도 행위와 과정, 그리고 역사적 우연성과 독특성을 동시에 이해하고자 한다

(채오병 2009, 1). 사건사(eventful history)는 사건들(events)의 연쇄이며, 사건은 인간 행위와 행위의 결과인 것이다. 타이완의 시대역량에 대한 연구는 지역학적 전통에 있는 연구이기에 이와 유사하게 사회과학적 고민과 개별기술 사례라는 문제를 공유하며, 이 점에서 사회과학적 지역연구이라고 할 수 있다(원재연 2005).

사건사 분석은 개별적 사건들과 거시적 구조의 밀접한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본 논문에서는 태양화운동과 군대인권유린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타이완에서 시대역량의 제3정당화라는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고자 한다. 태양화운동과 군대인권유린사건은 집권 국민당의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시켰으며, 또한 타이완 신세대들이 정치조직화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로서의 ‘사건’이었던 것이다. 태양화운동과 군대인권유린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행위자들이 이후에 결국은 시대역량에 참여했다는 점은 사건들 사이의 연결고리로, 본 논문에서 사건사 분석을 사용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

이 논문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5개월간의 타이완에서의 현지조사, 태양화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현지 언론자료들을 활용하여 작성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타이완의 정치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후,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타이완의 신생정당 시대역량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한다. 이어서 시대역량을 출현시키게 된 타이완 사회의 사건들, 그리고 시대역량의 구성원들과 그 성격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시대역량이 타이완의 제3정당으로 가지는 잠재성과 한계들을 동시에 이해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검토

타이완 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선거와 국민당, 민진당에 대

한 분석을 시도한다. 영어권에서는 발전국가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타이완의 정치에 대해서 출간해온 토마스·골드(Thomas B. Gold)가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왜 타이완은 중요한가』 (*Why Taiwan Matters: Small Island, Global Powerhouse*)를 출간했던 셸리 리거(Rigger 2011)가 있다. 셸리 리거는 그의 저작에서 작은 섬 타이완의 정치, 경제 성장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국제관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과 단교 이후 처음 공식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우리 학계에서 타이완 정치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학술 활동을 하는 학자는 지은주(2009; 2015)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출간된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정치』는 천수이볜 시기까지 타이완의 정치 상황과 사회문제를 가장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한 저작으로 보인다. 기존 정당인 국민당과 민진당 사이의 정치 동학과 갈등구조, 그리고 2004년 선거까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담겨져 있어, 타이완 정치의 역사경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2016년 진행된 총선에 대해서는 타이완 민진당의 전면집권을 중심으로 논의한 논문(강준영·장영희 2016)과 국민당의 실패와 몰락(국민호 2016) 등이 있다. 2016 총선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이 주로 국민당의 패배와 민진당의 승리라는 기존 정당들 사이의 선거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쓰여진 연구들이어서, 소수정당인 시대역량에 대한 분석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사건들 중 하나인 태양화운동에 관해서는 운동 그 자체보다는 ‘양안서비스무역협정’과 타이완 사회의 갈등구조를 분석한 논문(김민환·정현욱 2014)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과거 본성인/외성인 사이의 갈등에서 세대간, 그리고 계급간 갈등으로 타이완 사회의 갈등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타이완의 사회학

자 허밍쇼(Ho Ming-sho 2015)는 집권 국민당 정권의 실정이 태양화운동, 군대인권유린사건 등의 일련의 시민 조직화와 저항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태양화운동의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국민당 내부의 분열을 꼽는다. 그 당시 마잉주 총통과 입법위원장이었던 왕진핑(王金平) 간의 국민당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입법원을 점거했던 학생들을 진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점거가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의 원인이 바로 국민당 내부의 분열이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태양화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동시에, 기존 정당정치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시대역량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시도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6년 타이완 총선에 대한 연구들 또한 민진당의 전면집권과 국민당의 분열과 몰락에 초점을 맞춘 한계들이 있다. 이 논문은 시대역량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타이완 입법원 진출과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태양화운동 등 타이완 사회에서 발생된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II. 시대역량의 출현과 시대적 배경

타이완 정치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지난 2014년 거행된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 커원저(柯文哲)라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커p현상’(柯p現象)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국민당과 민진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커원저는 새로운 정치바람을 일으키며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이후에도 어느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타이완 정치의 모습은 정서적으로 반

1) 커원저는 타이완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출신이어서 교수를 칭하는 P로 부르곤 한다.

중국적이고 타이완을 중국과 구별되는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식하며, 또한 젊은 세대에 기반을 둔 동시에 반 국민당적 지향을 보인다. 지난 2016년 1월 선거에서 역시 이러한 바람으로 인해 민진당이 “누워만 있어도 당선된다”(躺著選)는 식의 이야기도 나왔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신생정당 시대역량 또한 이러한 반 중국, 반 국민당 정서에 기반을 두며, 젊은 신세대를 그 지지기반으로 한다. 타이완 정치의 변화에는 과거 민주주의/독재, 본성인/외성인, 민진당/국민당 등의 갈등에서 이제는 세대문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며(김민환·정현욱 2014), 신생정당 시대역량은 이러한 세대변화를 보여주는 한 사례인 것이다. 국민당이 과거 발전국가 세대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정당이었고, 민진당이 민주화와 독재에 대한 저항세대의 정당이었다면, 신생정당 시대역량은 새로운 타이완화 세대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지은주 2016, 29). 이러한 점에서 시대역량은 독재/민주주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탈권위



〈사진 1〉 시대역량의 광고: 입법위원 린창줘의 모습. 섬령악단 보컬 Freddy 참정 1분 경선광고. “나는 장발이고 문신도 새겨져 있으며, 곧 입법원에 진출할 것이다.”

출처 : 本土新聞 2015/10/05

주의 전환(post-authoritarian transformation)의 사례라 하겠다. 지난 선거기간동안 시대역량은 입법의원 후보이자 헤비메탈 그룹의 보컬리스트인 린창쥬(林昶佐)의 조깅장면을 광고로 내보이며 젊음을 강조하였다. 광고에서 린창쥬는 “나는 장발이고 문신도 새겨져 있으며, 곧 입법원으로 진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시대역량의 젊은 패기와 신선함을 강조하였다.

2015년 1월 창당된 정당 시대역량은 2016총선에서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2석으로 총 5석을 차지하게 되어 국민당에 이어 제3당의 위치를 확보했다. 지역구 전체 73석 중 3석을 얻었으며, 전체 정당 중 득표율 6.11%인 74만 4천이 넘는 표를 받아 지역구 비례대표 전체 34석 중 2석도 추가로 얻게 되었다(自由時報 2016/01/16). 비록 입법의원 5명에 불과한 군소정당이지만, 3석 이상이기에는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또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시대역량의 가장 큰 특징은 구성원 대부분이 젊고 정치경력이 없었던 신생정치인들이라는 점이다. 시대역량의 얼굴이자 지역구 입법위원들인 황귀창(黃國昌)과 린창쥬 그리고 홍쯔용(洪慈庸)은 각각 교수, 가수 그리고 일반인으로 출발하였으나, 각각의 지역구에서 5선 이상의 다선 국민당 입법위원들과 경쟁하여 승리하였다(自由時報 2016/01/16).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배경을 가진 일반인들이 기존 중견 정당정치인들을 모두 물리쳤던 것이다. 시대역량의 지역구 입법위원들이 출마했던 지역들은 과거 민진당 후보들이 계속 패배했던, 국민당의 지지가 강한 타이완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타이완 정치에서 북부는 국민당, 남부는 야당이라는 양분구도 역시 깨진 것이다. 이 점에서 시대역량의 지역구 입법위원은 비록 세 명에 불과하지만, 군소정당이 진출하기 어려운 힘든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그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된다.

〈표 1〉 시대역량 당선 지역구에서의 득표현황

지역구	후보자/소속정당	득표수	득표율(%)
타이베이시 (臺北市) 제5지역구	린창쥐(林昶佐)/ 시대역량	82,650	49.5
	린유팡(林郁方)/국민당	76,079	45.6
타이중시(臺中市) 제3지역구	홍쯔용(洪慈庸)/ 시대역량	93,451	53.9
	양치웅잉(楊瓊瑩)/국민당	78,334	45.2
신베이시(新北市) 제12지역구	황귀창(黃國昌)/ 시대역량	80,508	51.5
	리칭화(李慶華)/국민당	68,318	43.7

출처: 主流傳媒 2016/01/17 “時代力量2016區域立委得票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국민당의 텃밭에 출마한 상황이었지만, 홍쯔용과 황귀창은 각각 1만 표가 넘는 표차로 상대편 후보를 이길 수 있었다. 홍쯔용의 타이중 지역구는 국민당 소속의 5선 양치웅잉(楊瓊瑩)이 출마한 곳이었고, 황귀창의 지역구 역시 국민당 소속 7선 리칭화(李慶華)가 버티는 곳이었다. 또 다른 당선자인 린창쥐가 출마한 타이베이시 제5구역은 타이완 총통부(總統府)와 중정기념관(中正紀念堂) 등이 있는 타이베이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해서 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시대역량의 출현과 제도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몇 년간 타이완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마잉주정권의 친 중국정책과 이에 대한 저항과 반발, 두 번째는 2014년 3월에 발생한 태양화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당 정권의 실정을 보여준 군대인권유린사건으로, 이러한 경험을 발판으로 성장한 시민사회세력이 선거를 통하여 정당정치에 제도적으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1. 시대역량을 출현시킨 시대적 배경

(1) 마잉주정권의 친 중국정책

2008년부터 국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마잉주 총통은 앞선 민진당의 천수이볜과는 구별되게 점진적으로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노선을 취하기 시작한다. 사실 국민당은 명칭도 중국국민당(中國國民黨)으로 1992년 중국과 맺은 ‘92공식’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친 중국적인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앞선 천수이볜 정부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타이완 본토화 정책을 시행하여 중화우정(中華郵政)을 타이완우정(臺灣郵政)으로, 중정기념관(中正紀念館)을 민주기념관(民主紀念館)으로 바꾸는 등의 여러 변화를 가져왔었다. 이에 반해 마잉주정권은 불통(不統), 불독(不獨), 불무(不武), 즉 통일하지 않고, 독립도 하지 않으며, 무력 충돌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타이완 사람들은 이를 세 가지 중국정책, 즉 중국에 기울어지고(傾中), 중국을 따르며(從中), 중국에 아첨하는(媚中) 정책이라고 비아냥대곤 한다(성균중국연구소 2016). 실제로 마잉주 시기 타이완은 세계에서 가장 대중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되었으며, 오히려 타이완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국민호 2016). 다른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마잉주정권의 친 중국정책은 많은 반발을 야기했는데, 그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2008년 11월 중국 측 반관방기구인 해협회 주임인 천원린(陳雲林)이 타이완을 방문하자 타이완 경찰은 경호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병력을 투입하였으며, 시위대에 대해서도 과도한 진압을 하였다(최말순 2008). 당시 92공식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타이완 국기를 흔들 수 없게 되었으며(지은주 2009), 각종 시위도구 또한 몰수하였다. 타이완 자국민의 안전과 자유보다는 중국을 우대하는 듯한 마

잉주 정부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또한 쌀과자를 생산하는 기업이었던 타이완의 왕왕(旺旺)그룹은 신문사인 <중국시보>와 방송사 <중국tv>와 <중천tv> 등의 자유주의 언론을 매입한 후, 이들을 친 중국적이며 반대세력을 거칠게 비판하는 친 중국, 친 자본의 언론으로 바꾸어 놓았다(천신성 2016). 주로 중국에 투자하면서 친 중국적인 성향을 보이는 왕왕그룹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언론계열사들에 반영된 것이다. 이에 자본의 언론장악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친 중국 기업의 대중매체 독점을 비판하며 그 배후에 중국정부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報橘 2015/11/24). 마잉주정권의 친 중국정책은 타이완의 대중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게 감세, 현금 제공, 그리고 경찰력 제공 등 많은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하겠다. 결국 마잉주 집권 시기 동안 경제는 계속 침체되어 타이완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비정규직에 불과한 ‘22K 세대’ (22,000 타이완 달러 = 한화 81만원 가량: 우리의 88만원 세대에 해당)로 자조적으로 부르게 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들은 터무니없이 높아졌고, 실업은 만연되었으며, 비정규직은 대규모로 양산되었다(국민호 2016). 이러한 국민당의 친 중국 정책들은 수많은 저항들을 야기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래에 논의할 태양화운동이다.

(2) 태양화운동

흔히 ‘318’이라고도 불리는 타이완의 태양화(해바라기) 학생운동은 학생들이 2014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원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3월 17일, 국민당 소속 장칭중(張慶忠) 입법위원이 의회가 소란스러운 틈을 타 불과 30초 만에 ‘해협양안서비스무역협정’(服務貿易協議)²⁾을 입법원 심의에서 통과시키는 일이 발생했

2) 중국과 타이완이 체결한 경제무역협정인 ECFA(Cross-Straits Service Trade Agreement) 중 네 번째 조항이다. 공식 명칭은 ‘해협양안서비스무역협정’(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이다.

다. 장칭중이 입법원으로 들어와서 최종 통과 선언을 하기까지 불과 일 분도 걸리지 않은 것을 두고 사람들은 그를 ‘30초 장칭중’(半分忠)이라며 비난했다(TVBS新聞 2014/03/31). 이 사실이 SNS를 통해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3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점거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다. 학생들은 정부의 밀실험상을 통한 일방적인 정책결정방식을 비판하며 3월 18일 밤 ‘민주주의 수호의 밤’ 집회를 진행하다가 밤 9시부터 입법원 본회의장 점거를 감행하게 된다. 이것이 태양화운동의 시작이었다.

태양화운동이라는 명칭은 2014년 4월 한 시민이 학생들에게 태양화를 선물로 주었으며, 또 비가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란 비옷을 입고 참가한 데서 비롯된다(김민환·정현욱 2014, 6). 이 운동은 흑색도국청년진선(黑色島國青年陳線) 조직의 구성원인 타이완대학 정치학과 대학원생 린페이판(林飛帆)과 국립청화대학 사회학과 대학원생 웨이양(魏揚) 등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학생,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서비스무역협정의 공청회에 참여하려 한 학생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했었다. 또한 협정 내용에 타이완의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 이전에 고려되어야 하는 시민들의 인권보호 문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블랙박스 밀실험상 반대(反黑箱子)라는 구호로 조직하여, 3월 30일에는 오십만의 군중이 타이완을 상징하는 검은 셔츠를 입으며 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당시 입법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벽들에 붙어 있던 벽화들에서 타이완 젊은이들이 일변일국(一邊一國)이라는 주장을 하며, 타이완의 독립적인 주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黃恐龍 2014). 흑색도국청년진선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은 타이완에

만 서식하기 때문에 독립의 상징물이 된 타이완 흑곰(臺灣黑熊)을 그려 넣으면서 중국과 구별되는 타이완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태양화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밀실서비스협정에 굴복하지 않는다”(我不服從黑箱服貿),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가 지킨다”(自己的國家自己救), “민주주의 수호”(捍衛民主) 등의 구호를 외쳤으며, 학생지도자인 린페이판은 타이완의 독립을 공개적으로 주장하였다(黃恐龍 2014, 43-59). 또한 ‘국가’와 ‘민주’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면서 중국과 구별되는 타이완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강조되었다. 타이완의 맥락에서 ‘국가’의 개념은 중국과는 다른 독립된 주권국가를 지칭하는 것이며, ‘민주’와 ‘자유’ 역시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타이완의 특징을 부각하는 것이다. 즉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며, 민주주의 국가인 타이완에서는 민주와 자유라는 원칙에 따라 정치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태양화운동 당시 학생대표 린페이판은 연설에서 ‘자주성’,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는 타이완을 중국과 구별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자주성을 가진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또한 점거학생들은 국민당과 마잉주 총통에 대한 불복종뿐만 아니라 태양화운동을 지지했던 민진당의 협조도 거절했다. 사실 태양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민진당이 국민당을 제대로 견제하거나 감독하지 못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여겼으며, 이에 국민당/민진당의 양당 구도를 철폐하여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태양화운동 참여자 인터뷰 2016/2/14).

4월 6일 입법원장(한국의 국회의장)인 왕진핑(王金平)은 농성중인 학생들을 방문하였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서비스무역협정을 감시할 수 있는 감독조례초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蘋果日報 2014/04/06). 입법원이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앞으로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진행하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소정의 목표를 달성했음을 알리고 차후에 만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언제든지 다시 입법원을 점령할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입법원 점거 24일 만에 자발적으로 해산을 결정했다(三立新聞 2014/04/09). 4월 10일, 학생들은 스스로 입법원 안을 청소, 정리하고 입법원 의장석에 ‘인민회의’(人民會議)라고 쓰인 팻말을 놓으면서 운동을 마무리 지었다(自由時報 2014/04/10).

이 후 태양화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운동가들인 지식인 황귀창과 학생대표 린페이판, 웨이양 등은 결국 모두 시대역량으로 입당하게 된다. 중국의 지식인 왕후이(汪暉)가 지적한 것처럼 태양화운동은 국민당과 민진당의 기존 정당정치가 호소력도 정치적 상상력도 잃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다(장정아 2016, 69).

(3) 군대인권유린사건

2013년 7월 3일, 제대를 3일 앞둔 군인 홍종초(洪仲丘)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홍종초는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에서 돌아와 핸드폰과 mp3를 반납하지 않고 부대 안으로 반입했었다. 이에 대한 처벌로 홍종초는 3일 동안의 감금 조치와 여름의 태양별 아래에서 약 40km 정도 행군하는 육체적 체벌을 받던 중 쓰러지는 사고가 났던 것이다. 그 이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홍종초의 사인으로는 과도한 체벌과 상관에 의한 상해의 가능성이 의심되었지만, 정부측 관련자들은 우발적인 열사병이라고 주장하며 가족들과 대립하게 되었다(中央通訊社 2013/07/15). 이에 홍종초의 가족들에 시민들도 합류하여 정부의 빠른 대처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측은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보다는 의구심만 키우는 행동들을 보였었다. 이 후 홍종초의 사망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벌의 강도가 지나쳤다는 해석이 나왔으며, 홍종표가 후송되던 당일 CCTV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그 배후에 다른 원인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남게 했다.

홍종표라는 무고한 젊은이의 군대 내 의문사는 많은 시민들을 결집하여 국민당을 비판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타이베이에서 의사로 있었던 류린웨이(柳林瑋)와 함께 39명의 시민사회 인사들은 ‘공민 1985 행동 연맹’을 조직하여 흰색 옷을 입는 ‘백의군운동’(白衫軍運動)을 개시하게 된다. 백의군운동은 2013년 7월 20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었고, 25만명이라는 많은 인파가 참석하게 된다. 당시 타이완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운동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스민혁명’이라는 평가까지 내리게 된다(蘋果日報 2013/08/04).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그리고 무능력에 대한 비판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절정을 치닫게 되었으며, 유가족을 위로하러 왔던 마잉주 총통이 20분간 오도가도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臺海網 2013/08/05).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타이완 시민들의 국민당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되었으며, 홍종표의 누나이자 가족의 대표역할을 했던 홍쯔용 역시 시대역량에 입당하게 된다.

Ⅲ. 시대역량의 인물과 성격

1. 시대역량의 입법위원들

시대역량이 2016총선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구성원들이 앞서 논의한 태양화운동과 백의군운동의 핵심 참여자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시대역량은 태양화운동에서 주목 받았던 운동

가들을 앞세워 선거유세활동을 하였으며, 태양화운동 세력들이 주장했던 바를 실천하고자 하는 등, 태양화운동의 연속선상에 서있는 정당임을 주장했다. 태양화운동 당시 학생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린페이판을 내세워 유세와 선거공약에 나섰으며, 또한 타이완의 국가지위에 있어서 국민당과 민진당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타이완의 독립적인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 점에서 태양화운동과 시대역량 사이의 연속성이 존재한다.

시대역량은 민진당이 집권여당이 된 지금까지도 태양화운동 등에서 제시된 타이완의 근본적인 국가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러한 시대역량의 입법위원들은 그 연령에서 기성 정치인들보다 훨씬 젊으며, 또한 배경 등에서도 헤비메탈가수, 교수,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국가부문이 아닌 시민운동출신인데, 그들의 면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헤비메탈밴드 보컬출신: 린창쥬(林昶佐)

린창쥬는 프레디 림(Freddy Lim)이라고도 불리는 시대역량의 창립 멤버이다. 그는 타이완 독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과 함께, 앞서 광고에 언급되었던 섬령악단(閃靈樂團, ChthoniC)이라는 헤비메탈 록그룹의 메인 보컬로 활동해 왔다(自由時報 2006/07/27). 자유중국(自由中國)과 권위주의체제를 대표하는 구세대 정치인 장개석 기념관이 그의 지역구인 중정구에 있었는데, 총선 유세 때에는 그 바로 앞에서 록 음악을 연주하며 화려한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하였다. 장개석이라는 중국과의 연결고리, 백색테러와 독재라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판하며 신세대가 주창하는 타이완의 독립을 예술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그의 유세는 새로운 타이완의 미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기존에 있는 기성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린창쥬는 이번 선거의 승리

로 아시아 최초의 록그룹 출신 국회의원이 되었다.

린창취는 2004년에 이미 전 총통인 리덩후이(李登輝)가 만든 청년지도자 과정(靑年領袖班)의 1기 참여자로 활동했으며(新新聞 2012/07/04), 2014년까지 국제인권조직인 엠네스티 타이완 지사의 이사장(理事長)으로 재직했다. 2007년에는 2·28사건 60주기를 맞아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리고 장개석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기 위한 음악회(正義無敵音樂會)를 열기도 하였다(自由時報 2007/03/01). 스스로의 정치적 입장을 스스로 밝혀왔던 그는 태양화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중국과 구별되는 타이완 정체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린창취는 중국정부로부터 타이완의 독립분자로 낙인찍혀 이미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에도 입국이 금지된바 있다. 린창취는 1976년생으로 만 40세의 젊은 나이로 시대역량의 신선함을 대변하며, 거침이 없고 장발에 문신까지 한 그의 언행은 새로운 세대 타이완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겠다.

(2) 태양화운동이 배출한 ‘전쟁의 신’(戰神): 황귀창(黃國昌)

황귀창은 1973년생으로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의 법률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었으며 민사소송과 강제집행법, 파산법, 국제소송 그리고 증거법 등을 연구해온 학자였다. 학자출신이기에 시대역량 내부에서 논리적 사고를 제안하는 브레인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Taipei Society’(澄社)라는 사회운동조직의 책임자(社長)로 부임했었다(蘋果日報 2014/11/21). 황귀창은 2016 총선을 위해서 중앙연구원 연구직을 사임하고 전문정치인으로 뛰어들었으며, 이 점에서 타이완국립대학교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며 총선 이후 학교로 복귀했던 사회민주당(社會民主黨) 당수 판윈(范雲)과 구별된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학생운동에 몸담아 왔으며, 국제법과 사법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력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는 학생들이 태양화운동 중 입법원을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학생들 곁을 떠나지 않으며 조언을 하였다. 나아가 단순한 조언에 그치지 않고, 태양화운동 과정 중 도국전진(島國前進)이라는 조직을 함께 만들면서 정부를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직접 실천하고자 했다(自由時報 2014/05/19). 당시 열변을 다해 학생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어떤 질문에도 카리스마 있게 대답하는 모습 때문에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명해졌다.

태양화운동 이후 시대역량에 입당하기 전 그는 국민당과 민진당이 아닌 제3의 대안을 추구했던 공민조합(公民組合)의 창당 멤버였다(風傳媒 2014/03/03). 공민조합은 양당구도 타파와 정치과정 감독, 그리고 대안적인 정책 제의를 목적으로 했던 시민운동 조직이다. 공민조합이 이후 판원의 사회민주당과 시대역량,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자 시대역량에 합류하면서 제도정치에 입문하게 된다(自由時報 2015/05/04). 현



〈사진 2〉 태양화운동 시의 황귀창
출처: 徐慈薇 2016

재 황귀창은 시대역량의 주석으로 실질적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당의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다. 황귀창은 시대역량이 태양화운동의 결과로 창당된, 시민사회의 운동이 제도화된 정당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이자 태양화운동과의 연결고리이다.

(3) 군대인권유린사건 희생자 홍종초(洪仲丘)의 누이: 홍쯔용(洪慈庸)

시대역량 세 명의 지역구 입법의원 중 최연소이자 유일한 여성은 홍쯔용이다. 홍쯔용은 시대역량 입법의원 중 가장 어린 1982년생이지만, 젊은 서민층의 모습을 대변하는 인기있는 정치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쯔용은 군대에서 의문사했던 홍종초의 누나로 홍종초 사건을 통해서 부각되어 ‘홍 누나’(洪姊姊)로 불리우던 인물이다. 홍종초 사건 당시 언론매체들 앞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당당하면서도 날카롭게 비판하고 유가족들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했던 사람이 홍쯔용이었다.

홍종초 사건 당시 언론매체는 연일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으며, 기자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홍씨 가족을 방문할 때마다 고인의 누나였던 홍쯔용이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 발표나 질의응답을 맡아서 담당하였다. 홍쯔용은 항상 하얀 마스크에 검은 빨테 안경을 쓰고 나타나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도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가족들의 입장을 전달하였다(蘋果日報 2013/07/23). 국방부 관계자나 마잉주 총통의 방문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말하던 홍쯔용은 여러 번 정치권의 관심을 받아왔으며, 민진당의 입당 권유 또한 받게 된다. 민진당의 입당권유를 계속 거절하던 홍쯔용은(自由時報 2015/01/06), 홍종초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초시엔즈(邱显智)가 시대역량으로 입당하면서 2015년 2월 시대역량으로 입당하게 된다(蘋果日報 2015/02/25). 이후 타이중시(臺中市) 제3구역의 지역구 후보로 확정되었으며(中時電子報 2015/02/24), ‘정치신인’(素人)라는 일천한 정치경력에도 불구하고

하고 결국 입법원에 진출하게 된다. 홍쯔용은 폭력적인 국가권력에 항거했던 용감한 시민의 상징으로, 반 국민당 정서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활동가로 또 하나의 상징적인 신정치인이다.



〈사진 3〉 홍중초 사건 당시 인터뷰하는 홍쯔용

출처: 地方中心 2013

(4) 비례대표 : 쉬용밍(徐永明)과 까오루 이용 빠지리(高路·以用·巴嚕刺)

시대역량은 3명의 지역구 입법위원 이외에도 2명의 비례대표가 있다. 그 중 한 명인 쉬용밍은 1966년생으로 시대역량 입법위원 중 가장 나이가 많다. 그는 타이완국립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를 졸업한 이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였다. 이후 귀국하여 국립 중정대학교(國立中正大學)와 중앙연구원의 연구원을 거쳐 동오대학교(私立東吳大學)의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 입법위원이 되었다. 쉬용밍은 풍부한 학생운동 경험과 더불어 언론에 자주 출연하는 정치

평론가이다(自由時報 2015/06/21).

다른 한명의 비례대표는 타이완 소수민족인 원주민 출신의 까오루 이용 빠지라로 1977년 생이며 원주민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아메이족 출신이다. 그녀의 이름은 아메이족 언어로는 Kawlo Iyun Pacidal이다. 시대역량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녀는 원주민 신문잡지(原住民新聞雜誌)와 Lima 신문세계(Lima 新聞世界) 등의 기자 및 아나운서였다. 또한 대만원주민족정책협회 이사인 동시에 원주민족문화기금회 회장 및 집행장(小米穗原住民族文化基金會董事兼執行長)으로 있었다. 또한 환경보호운동 및 원주민보호 운동에도 참여하는 사회운동가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원주민 소수민족 출신으로 여성과 소수자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遠見 2016/01/24).

2. 제3정당 시대역량의 성격: 민진당의 지원 혹은 견제세력?

(1) 공민조합의 분열

시대역량의 기원은 태양화운동 이후 결성된 공민조합(公民組合)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민조합은 대만의 오랜 정당 구도인 국민당과 민진당 양당의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태양화운동 이후 정치과정을 감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민조합 내부 노선 분열로 인해 타이완국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판윈(范雲)이 이끄는 사회민주당과 시대역량, 서로 다른 두 정치조직으로 나뉘게 된다. 이 두 정당은 2016년 선거에서 민진당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다. 시대역량은 소수정당들이 입법원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민진당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회민주당은 이와는 달리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당 구도를 타파하고 기존 보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진당과도 철저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端傳媒 2015/08/28).

정책적으로 노동, 복지 등에서 보다 급진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민진당과의 협력을 거부했던 사회민주당은 녹색당과의 연합에도 불구하고 2016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지역구에서 당수인 판원을 포함한 당선자가 전혀 나오지 못했고 정당 지지율 또한 2% 대에 머무르면서 소수 진보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聯合新聞 2016/01/19). 사회민주당의 당수인 사회학자 판원은 녹색당과 손잡고 민진당과의 공개적인 협력을 거부하다 선거 날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차이잉원과 함께 도시락을 만드는 행사에 참여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대역량은 민진당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하는 전략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입법원 진출에 성공하였다. 이 사실은 타이완 정치에서 군소정당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존재하기는 쉽지 않고, 기존 세력인 민진당과의 연합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대역량의 입법원 진출 배후에는 민진당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다.

(2) 민진당과의 협력?

2016년 총선거시 입법위원 후보를 정하는 시기에 민진당과 시대역량은 국민당이 입법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각 지역구의 후보자를 조정하였다(自由時報 2015/09/03). 민진당 후보자가 강한 곳에는 시대역량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고, 민진당이 취약한 지역에만 시대역량의 후보자가 출마하는 식으로 조정을 하였는데, 때문에 시대역량이 맡게 된 지역구들은 모두 타이완 북쪽의 전통적인 국민당의 텃밭이었다. 본성인이 대다수인 타이완의 남부 지역은 국민당세력이 약하고 민진당 세력이 강했던 것에 비하여, 타이완의 북부지역 중 타이베이(臺北)와 신베이(新北)지역들은 외성인도 많으며 민진당도 오랫동안 무너뜨리지 못했던 국민당의 고정 지지기반이라고 할 수 있었다(新新聞 2016/01/28). 신베이시 시장선거에서

과거 국민당의 주리론이 차이잉원을 이긴 사실도 이 사실을 증명한다. 20년 이상 정치 경력을 가진 후보들을 상대로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갓 창당된 시대역량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군소정당으로서 다른 대안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시대역량은 타이완 정치의 새로운 독립 세력이라기 보다는 궁극적으로 민진당과 같은 반 국민당 계열의 범녹연맹(泛綠聯盟)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당을 공공의 적으로 하는 반 국민당 동맹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흔히들 민진당을 대녹(大綠), 시대역량을 소녹(小綠)으로 부르기도 하며, 2016 총선 유세시에는 차이잉원이 황귀창과 함께 공동유세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진당이 이미 입법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여 집권당이 된 이 시점에서 시대역량이 항상 민진당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2016년 총선에서는 민진당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집권당인 국민당을 비판하였지만, 민진당이 행정부와 입법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시대역량은 민진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야당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물론 시대역량이 집권당인 민진당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 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선거에서 시대역량은 같은 야당의 입장에서 민진당과 협력하여 집권 국민당에 함께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민진당은 타이완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시대역량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시대역량은 중국의 견제와 위협 아래 소수정당으로 타이완의 정체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민진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민진당과 시대역량 사이의 협력은 과거 집권 국민당에 대한 반대 연합 야당들이었을 때 보다 명확했으며, 민진당이 집권여당의 위치를 차지한 현재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3) 민진당과의 갈등?

민진당과 시대역량의 갈등관계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총선 유세 과정에서 민진당은 시대역량을 지지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공동유세도 진행하였지만 정작 선거 막판에는 입장을 바꿔 시대역량보다 민진당에 표를 몰아줄 것을 호소했다(中時電子報 2016/01/15). 시대역량은 많은 젊은 층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고 민진당은 시대역량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젊은 층과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선거막판 시대역량에 위협을 느낀 민진당은 다시 지지를 철회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이는 과거 천수이볜 시기 민진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해 국정관리가 어려웠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타이완 노동운동 활동가와의 인터뷰 2016/1/18).

민진당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다른 한 사례는 비례대표 입법의원인 쉬용밍(徐永明)의 경우이다. 그는 2015년 5월 한 방송에서 당시 민진당 대표인 차이잉원이 타이중 제8구역 지역구에 자신을 공천시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시대역량으로 당적을 변경하여 입당을 결정한다(自由時報 2015/06/21).

차이잉원이 총통으로 취임하면서 두 정당 사이의 차이는 조금 씩 더 확실해졌다. 민진당의 차이잉원이 5월 30일 공식적으로 집권하면서 그 성격이 더 두드러지는데, 민진당은 중국과의 관계가 양국론이 아닌 중화민국 헌정체계에 맞추고 미래는 2,300만 타이완 주민이 결정한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거 천수이볜 집권시기 진행했던 여러 급진적인 타이완화 정책이 가졌던 부작용을 의식한 동시에,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민진당 내부에서는 현재까지 협의된 결과는 “타이완 지역과 대륙지역 인민 간의 감독 조례”(台灣地區與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라는 명칭이 최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히며, ‘국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國政

評論 2016/04/19).

민진당과의 관계에 대해 홍쯔용은 “시대역량이 좀 더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민진당처럼 집권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50% 이상의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부담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당의 독특하고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시대역량은 타이완의 국가적 지위를 독립국가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三立新聞 2016/01/14)며 민진당과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입법위원 린창취는 2016년 2월 24일 정상국가로서 ‘타이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보다 급진적인 타이완-중국관계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입법위원인 린창취와 황귀창 모두 홍콩 입국이 거부된 사실은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들을 타이완 독립분자로 지정하여 입국금지한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시대역량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포기하도록 미국정부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집권 민진당이 타이완의 국제적 입지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공식화하기 어려운 독립과 자주국가라는 표현을 시대역량은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기준법과 관련해서도 시대역량과 민진당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입법원에서 노동기준법 협상을 진행하면서, 시대역량은 당 내 협상 진행 모습의 공개를 위하여 기자들의 참석을 허용했는데, 민진당 지도자인 커젠밍(柯建銘)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이 노동기준법 관련 민진당 커젠밍과 시대역량 황귀창은 지속적으로 비판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민진당 입장에서는 신생정당 시대역량의 입장이 너무 원칙적이거나 이상적이고, 시대역량의 입장에서는 민진당의 입장이 너무 타협적이라는 것이다. 집권당이 된 이후 민진당의 행보에서 타협적이거나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대역량과의 마찰이 예

상되고 있다. 이 점에서 시대역량은 너무 이상적(idealistic)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not realistic) 비판을 받고 있다. 사실 시대역량은 시민단체 출신의 사회운동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여전히 정부 외곽의 사회단체처럼 행동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소수정당인 시대역량은 실제로 협상력을 가지거나 유의미한 정책을 입안하기보다는, 마치 연예인들처럼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자 하는 선정적인 미디어 정치를 하며 실질적인 개혁정치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타이완 사회민주당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6/2/15).

IV. 맺는 말

2017년 1월 2일 미국의 *The Washington Post*는 “The Taiwanese see themselves Taiwanese, not as Chinese”(Chen et al 2017)라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주된 기사내용은 많은 타이완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국 사람이 아닌 타이완 사람으로 생각하며 타이완 역시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립국가로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2014년 기준으로 타이완 인구 중 오직 3%만이 스스로를 중국 사람으로 생각하며, 60% 가량이 중국과 구별되는 타이완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타이완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타이완인’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국호 또한 ‘중화 타이페이’나 ‘중화민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명칭인 ‘타이완’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40세 이하의 젊은 타이완인들 중 독립을 희망하는 비율은 84%나 되어, 중국과의 통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타이완 젊은이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독립에 대한 열망을 흔히 ‘자연독’(自然獨)이라 지칭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독립사상을 가지고 있음은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논의한 시대역량이라는 정당도 이러한 타이완의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논의했던 신생정당 시대역량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시대역량은 태양화운동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정당이다. 이 점에서 시대역량은 시민사회에 존재했던 사회운동 세력이 정당을 구성한 후 입법원에 진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대역량은 태양화운동의 주된 참가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며,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세를 통하여 타이완 입법원에 진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대역량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민당의 ‘92원칙’도 아니고 민진당의 모호한 정책도 아닌 명확한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한다. 이 점에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시대역량은 ‘중화민국’ 혹은 ‘중화 타이베이’가 아닌, ‘타이완’이라는 명칭의 독립된 정식국가임을 주장한다. 타이완은 결코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며, 통일의 대상도 아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독립국가로서 타이완을 의미한다.

세 번째, 민진당 정권아래에서 시대역량은 야당의 위치이다. 2016 총선에서 시대역량은 민진당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역구 공천을 하였고, 총통도 차이잉원을 지지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두 번째 특징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정책상 민진당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 차이잉원 정부는 ‘국가’ 개념이나 ‘우리국가’(我國)의 사용을 자제함으로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또한 집권당으로서 타이완 내부에 존재하는 친중국세력도 자극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동기준법 관련해서도 민진당과 시대역량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대역량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민진당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시대역량은 태양화운동의 산물과 젊은 세대를 대표한다는 참신한 잠재

성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념적 지향은 분명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젊은 입법위원들로 구성된 소수정당이라는 한계도 함께 보여주었다.

투 고 일: 2017년 01월 15일

심 사 완 료 일: 2017년 02월 02일

게 재 확 정 일: 2017년 02월 15일

참고문헌

- 강준영·장영희. 2016. “2016년 대만대선-차이잉원 정부의 출현과 양안관계 전망.” 『중국학연구』 75(2): 133-156.
- 국민호. 2016. “국민당의 친중국 정책 실패와 대만의 정권교체.” 『디아스포라연구』 10(1): 247-274.
- 김민환·정현욱. 2014.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쟁점과 대만 사회 갈등구조 변화.” 『아태연구』 21(3): 5-35.
- 『대만은 지금』. 2017/01/06. “대만 20대는 ‘시대역량당’ 제일 선호해.”
- 성균중국어연구소. 2016. 『차이잉원 시대 양안관계: 대만의 시각』 서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 쉬진위·안소현. 2016. “양안은 화해할 수 있을까?” 『역사비평』 2: 165-190.
- 원재연. 2005. “사회학적 중국연구방법의 모색” 『사회과학논집』 36: 23-45.
- 장정아. 2016. “이 폐허를 응시하라.” 『황해문화』 92: 53-85.
- 郑鸿生(정홍성)·김하림. 2012. “대만에서의 중국인 정체성의 우여곡절과 전망.” 『中國近現代史研究』 56: 57-84.
- 지은주. 2009.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정치: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재편성』. 파주: 나남.
- 지은주. 2015. 『또 다른 중화, 대만』. 파주: 김영사.

- 지은주. 2016. “대만의 세대,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중국요소.” 『국가전략』 22(1): 5-35.
- 채오병. 2009. “사건사의 인식론과 방법론.” 『사회와 역사』 83: 157-185.
- 천신싱. 2016. “타이완 정부의 ‘비중국 요인’ 조절과 양대국 사이의 ‘신남향 정책’.” 『황해문화』 92: 86-105.
- 최말순. 2008. “양안회담 재개와 대만 반중시위.” 『월간 말』 270: 72-175.
- 地方中心(디팡중심). 2013. “洪慈庸: 軍檢只想交个60分.” <http://www.ettoday.net/news/20130731/249208.htm> (검색일: 2016. 12. 30).
- 本土新聞(번투신원). 2015. “閃靈主音Freddy參政 一分鐘競選廣告: 我長髮, 我刺青, 我將進入立法院.” <http://www.localpresshk.com/2015/10/freddy-on-the-run/> (검색일: 2016. 12. 30).
- 徐慈薇(쉬쯔웨이). 2016. “搞太阳花竟然这样好赚, 黄国昌身家曝光夫妻名下23笔不动产” <https://www.gjcz.com/p/V55twWtQ/gao-tai-yang-hua-jing-ran-zhe-yang-hao-zhuan-huang-guo-chang-shen-jia-pu-guang-fu-qi-ming-xia-23bi-bu-dong-chan/> (검색일: 2016. 12. 30).
- 黃恐龍(황콩롱). 2014. 『野生的太阳花』. 台北: 玉山社.
- 『TVBS新聞』. 2014/03/31. “關鍵30秒! 臺下扭打張慶忠「突襲」無效.”
- 『國政評論』. 2016/04/19. “從兩岸協議監督條例看民進黨的政治把戲.”
- 『端傳媒』. 2015/08/28. “范雲: 還停留在誰是「本土」是舊政治.”
- 『臺海網』. 2013/08/05. “马英九参加洪仲丘告别式 被呛爬进去.”
- 『聯合新聞』. 2016/01/19. “第三勢力的歷史機遇——2016大選第三勢力挫敗之後.”
- 『報橘』. 2015/11/24. “原來親中的下場是如此——陸媒報導: 中國旺旺的寒冬已經到來.”
- 『蘋果日報』. 2013/07/23. “洪姊姊嗆軍方 好犀利.”
- 『蘋果日報』. 2013/08/04. “進擊的鄉民 1985聯盟竟申聯25萬公民.”
- 『蘋果日報』. 2014/04/06. “王金平聲明全文 籲學生帶著理想向前行.”

- 『蘋果日報』. 2014/11/21. “黃國昌升格 升等為中研院研究員.”
- 『蘋果日報』. 2015/02/25. “洪慈庸參選：年輕人要站出來.”
- 『三立新聞』. 2014/04/09. “服貿/林飛帆道歉 親上火線溝通：退場非終點，是另個開始.”
- 『三立新聞』. 2016/01/14. “獨家專訪／洪慈庸告訴你 時代力量與民進黨的不同.”
- 『新新聞』. 2012/07/04. “【人物】「閃靈」主唱Freddy大聊三位總統.”
- 『新新聞』. 2016/01/28. “【政治事】時代力量攻下三城 躍居第三大黨.”
- 『遠見』. 2016/01/24. “39歲的高潞·以用·巴嚨刺，帶著記者視野改變國會.”
- 『自由時報』. 2006/07/27. “閃靈主唱Freddy 新一代台灣鬥士.”
- 『自由時報』. 2007/03/01. “蘇煥智嗆馬：應還原真相.”
- 『自由時報』. 2014/04/10. “太陽花學運 今晚退出議場.”
- 『自由時報』. 2014/05/19. “成立島國前進 黃國昌：對抗兩岸權貴集團 還要更努力.”
- 『自由時報』. 2015/01/06. “民進黨勸進參選台中立委 洪仲丘之姐洪慈庸：評估中.”
- 『自由時報』. 2015/05/04. “黃國昌今加入時代力.”
- 『自由時報』. 2015/06/21. “徐永明加入時代力量.”
- 『自由時報』. 2015/09/03. “民進黨，時代力量新竹整合 陳為廷：勿逼退.”
- 『主流傳媒』. 2016/01/17. “時代力量2016區域立委得票數.”
- 『中時電子報』. 2015/02/24. “洪慈庸將選立委 对上楊琼櫻.”
- 『中時電子報』. 2016/01/15. “民進黨為何切割時代力量.”
- 『中央通訊社』. 2013/07/15. “洪仲丘死因 法醫鑑定是他為.”
- 『風傳媒』. 2014/03/03. “黃國昌組「公民組合」2016進軍國會.”

Chen, Fang-Yu, Wei-ting Yen, Austin Horng-en Wang and. Brian Hioe.
2017. “The Taiwanese see themselves as Taiwanese, not as Chinese.”
The Washington Post. Jan. 2nd.

- Ho, Ming-sho. 2015. "Occupy Congress in Taiwan: Political Opportunity, Threat and the Sunflower Movement."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5(1): 69-97.
- Rigger, Shelley. 2011. *Why Taiwan Matters: Small Island, Global Powerhouse*. New York: Rowmand and Littlefield.
- Sewell, William, Jr. 2005. *Logics of Hist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on, Jaeyoun. 2011. "Toward an 'Eventful' Comparison of Post-Socialism."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5(3): 1-18.

Abstract

2016 Taiwan Election and the Rise of the New Power Party

Keum Bee KOH · Jaeyoun WON

Dept. of Sociology, Yonsei University

On January 16th, 2016 Taiwan's 'New Power Party' successfully got into Taiwan's National Assembly as a newly emerging third party. The rise of the New Power Party was possible due to recent changes in Taiwan politics, 1) the failure of Pro-China policy by the Nationalist Party, 2) Sunflower Movement, and 3) the human rights abuse and the sudden death of a soldier in the military.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the New Power Party as evidences of new changes in Taiwan politics - the decline of the old Nationalist party, resistance toward Pro-China Policies, as well as the rise of the new Taiwanese identity which emphasizes on freedom, democracy and human rights. KMT's clos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the policy of neo-liberalism in the past eight years have led to dissatisfaction of many citizens, and the series of resistance and social movement have consequently entailed in opening the door for the new, third force in Taiwanese politics.

It is still premature to tell whether the New Power Party will play a supporting role to the ruling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or an

oppositional force against it. As a minority party, the New Power Party does not have to worry about maintaining majority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can be more vocal about Taiwanese independence. This case of the New Power Party is an example that activists and intellectuals in civil society join coalition to mobilize and eventually to enter the state politics.

Keywords: New Power Party, Sunflower Movement, 2016 Election, Taiwan, eventful analysis